

일본의 의류 제품 시장을 쾌적·안심·안전의 힘이

새롭게 만들어 <2/2>

◎ 후지보 홀딩스 - 면 100% 고급 이너의 냉감·보온의 각 기능 실현

후지보 홀딩스는 섬유 상품 개발부(纖維 商品 開發部)를 중심으로 후지보 텍스타일이나 후지보 어패럴이라고 하는 사업 회사(事業 會社)의 벽을 넘은 소재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연구 테마는 면 베이스(綿 base)의 쾌적 기능 소재(快適 機能 素材)의 개발이다. 그 성과로서 ‘아이스드 코튼(Iced cotton)’과 ‘난 코튼(暖 cotton)’이 개발되었다.

아이스드 코튼은 생지의 열 용량과 수분 확산성을 향상시켜 피부와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하는 실·편조직·가공을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냉감성의 지표가 되는 Q_{max} 값이 0.3 이상이 되도록 실제로 만들어낸 냉감 소재이다.

난(暖) 코튼은 특수 방적과 가공, 미기모 가공(微起毛 加工)으로 내의와 피부 사이에 많은 공기층을 만들어 면 100%에서의 보온성을 향상시켰다. 이들이 모두 고급 이너 브랜드(高級 inner brand)인 ‘로모스’ 시리즈(series)로 판매되고 있는데, 아이스드 코튼은 일부를 생지로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제안해 온 소재에서는 특수 촉감 가공에 의한 미기모조 원형 편지(微起毛調 元型 編地)인 ‘로즈페탈(Rose Petal)’과 땀 얼룩 방지 가공인 ‘디스노티스(Disnoticed)’의 문의가 많아졌다. 특히 디스노티스는 땀 얼룩 방지 가공의 원조라고 할 만한 소재이다. 발수 가공 면(面)에서 통기성과 흡수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공에 신경을 썼으며 찌든 느낌이 별로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와카야마(和歌山) 공장의 가공 기술을 살린 소재이다.

섬유 상품 개발부에서는 이외에도 면 100%에 의한 기능 소재를 가급적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 특히 최종 상품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는데 방적으로부터 제품에까지 일관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 구라보 - 안심 알기 쉽게 풀고, 이브리크, 이치야보시, 클렌제 등 돋보여

구라보는, 쾌적이나 안심·안전의 기능 소재를 마지막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모양이나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속건 기능사(速乾 機能絲)인 ‘이치야보시’, 항 바이러스 가공(抗 virus 加工)인 ‘클렌제(Cleanse)’ 등이다. 전자선 그래프트 중합 가공 소재(電子線 draft 重合 加工 素材)인 ‘이브리크(EBRIQ)’도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치야보시는 독자적인 표층 형성 기술(表層 形成 技術)로 방직한 기능사(機能絲)이다. 니즈(needs)가 커지고 있는 속건성과 면사 촉감의 2가지 기능을 살림으로써 타월이나 침장, 셔츠 용도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쾌적 소재로서 공장의 ‘장인 기술’을 융합하여 개발한 스트레치 소재 등을 ‘마스터 크리에이션(master creation)’으로서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등 일본 국내 공장의 기술력을 표면에 드러내고 있다.

안심·안전 소재로서는 클렌제가 본격적으로 채용될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닥터 코트(doctor coat)’, 학교 체육복 등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농업 작업복(農業 作業服) 등으로도 적극적으로 소개할 생각이다.

이브리크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브리크는 면을 고에너지로 개질함으로써 항균(抗菌), 소취(消臭), 흡습 발열(吸濕 發熱), 접촉 냉감(接觸 冷減), 방염(防炎)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기능을 반영구적으로 생지에 얹어줄 수 있음으로써 천연 섬유의 촉감과 합성 섬유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는 ‘제 3의 섬유’로서 소비자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도 안심이나 쾌적을 알기쉽게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구라보의 전략이다.

이외에 방염 소재인 ‘브레바노(Brevano)’는 소재가 난연(難燃)이기 때문에 니트에서도 상품화할 수 있는 점을 살려 트레이너나 일반 의류 용도(一般 衣類 用途)로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 “착용하면서 안심감을 받게 되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기본 전략이다.♣